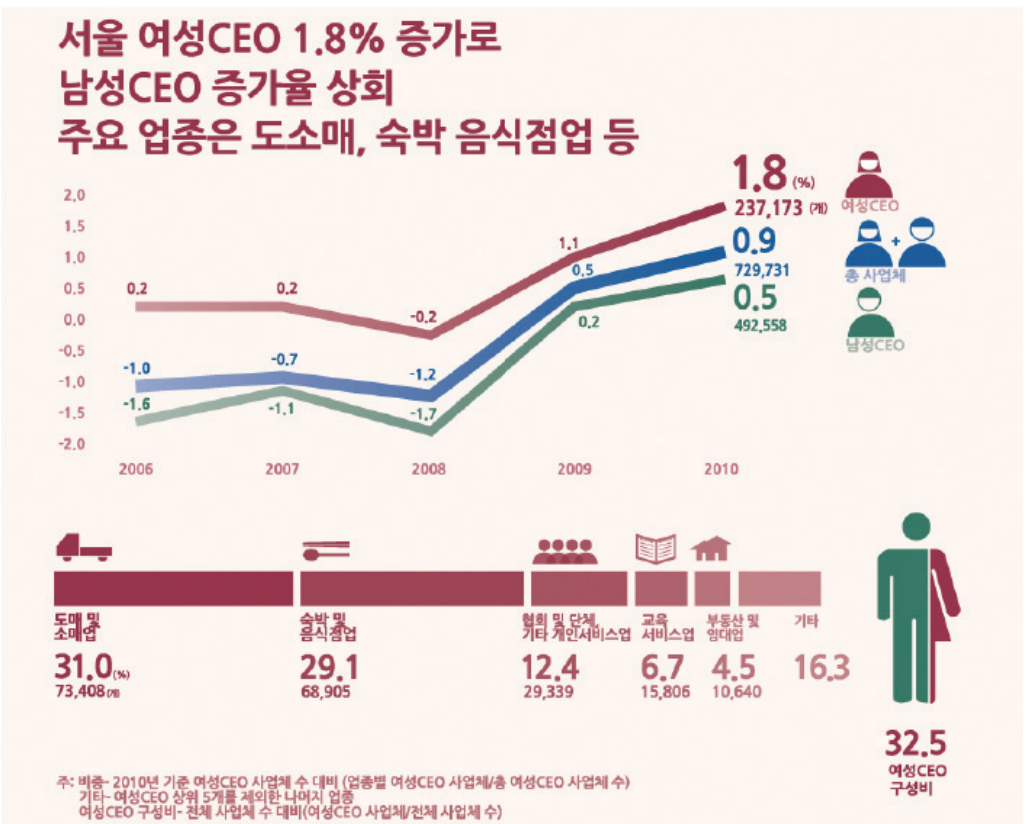
서울 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

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



* 자료: 통계청, 서울연구원

서울 여성CEO 1.8% 증가로 남성 CEO 증가율 상회
주요 업종은 도·소매, 숙박·음식점업 등

■ 서울지역 사업체 중 여성 CEO 사업체 수 1.8% 증가, 5년 평균 0.6% 증가

- 2010년 기준 서울지역 사업체 수 총 729,731개. 그 중 32.5%인 237,173개 사업체는 여성CEO, 나머지 67.5%인 492,558개는 남성CEO로 조사
- 여성CEO 사업체 증가율은 1.8%로 총 사업체 증가율인 0.9%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증가
- 5년간(2006년~2010년) 여성CEO의 평균 증가율은 0.6%로 남성CEO 평균 증가율(-0.7%) 및 총 사업체 평균 증가율(-0.3%) 보다 상회

■ 여성CEO가 많은 업종은 도·소매, 숙박·음식,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

- 여성CEO가 많은 상위 5개 업종 중 1위는 도·소매업으로 31.0%(73,408개) 차지
- 그 외 숙박·음식점업 29.1%(68,905개), 협회·단체·기타 개인서비스업 12.4%(29,339개), 교육 서비스업 4.5%(10,640개) 차지
- 남성CEO가 많은 상위 5개 업종은 도·소매업, 운수업, 숙박·음식점업, 제조업, 협회 및 단체, 기타 개인서비스업 순

■ 양질의 여성CEO 증가를 위한 전문적 교육 필요

- 향후 여성CEO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증가를 위해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전문적· 체계적인 교육 필요
- 또한 결혼, 출산,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마련 필요

*** 본 인포그래픽스는 서울경제 8월호(89호) 생생리포트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, 2010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(통계청)로 작성**